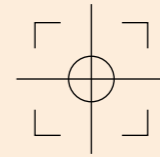


Ag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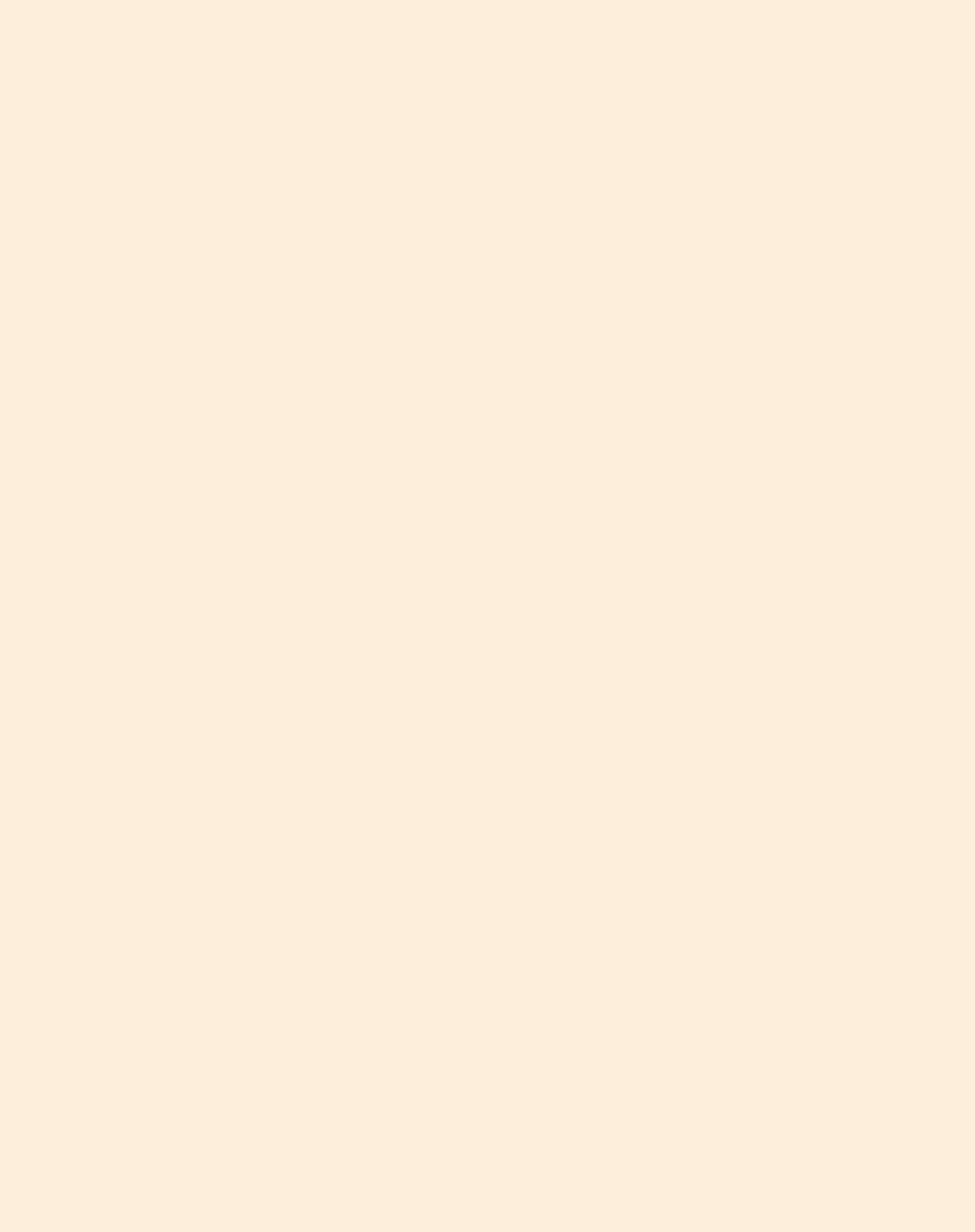
국립중앙의료원
MAGAZINE OO
VOL.2

나이가 들다



국립중앙의료원
MAGAZINE OO
VOL.2

나이가 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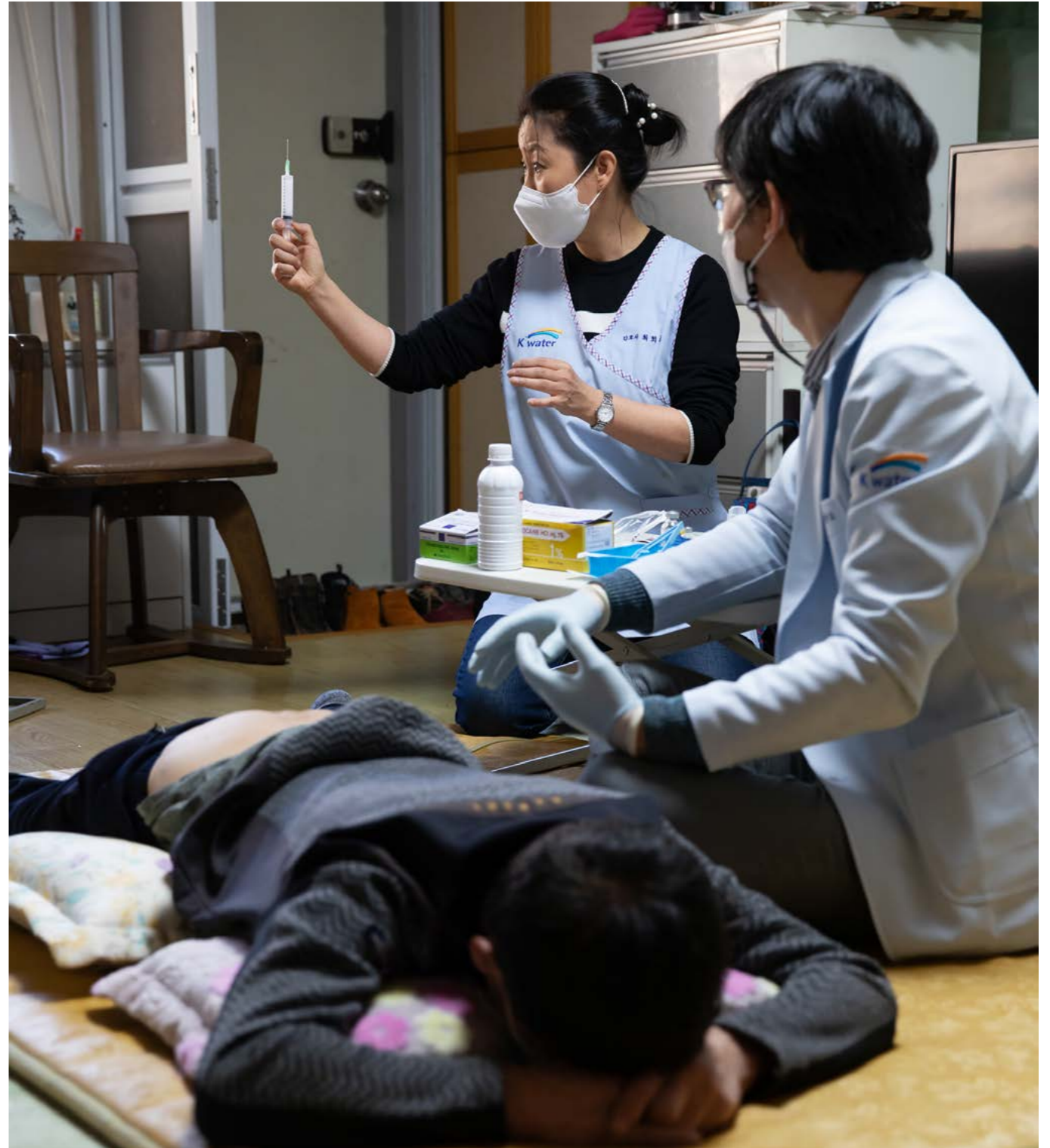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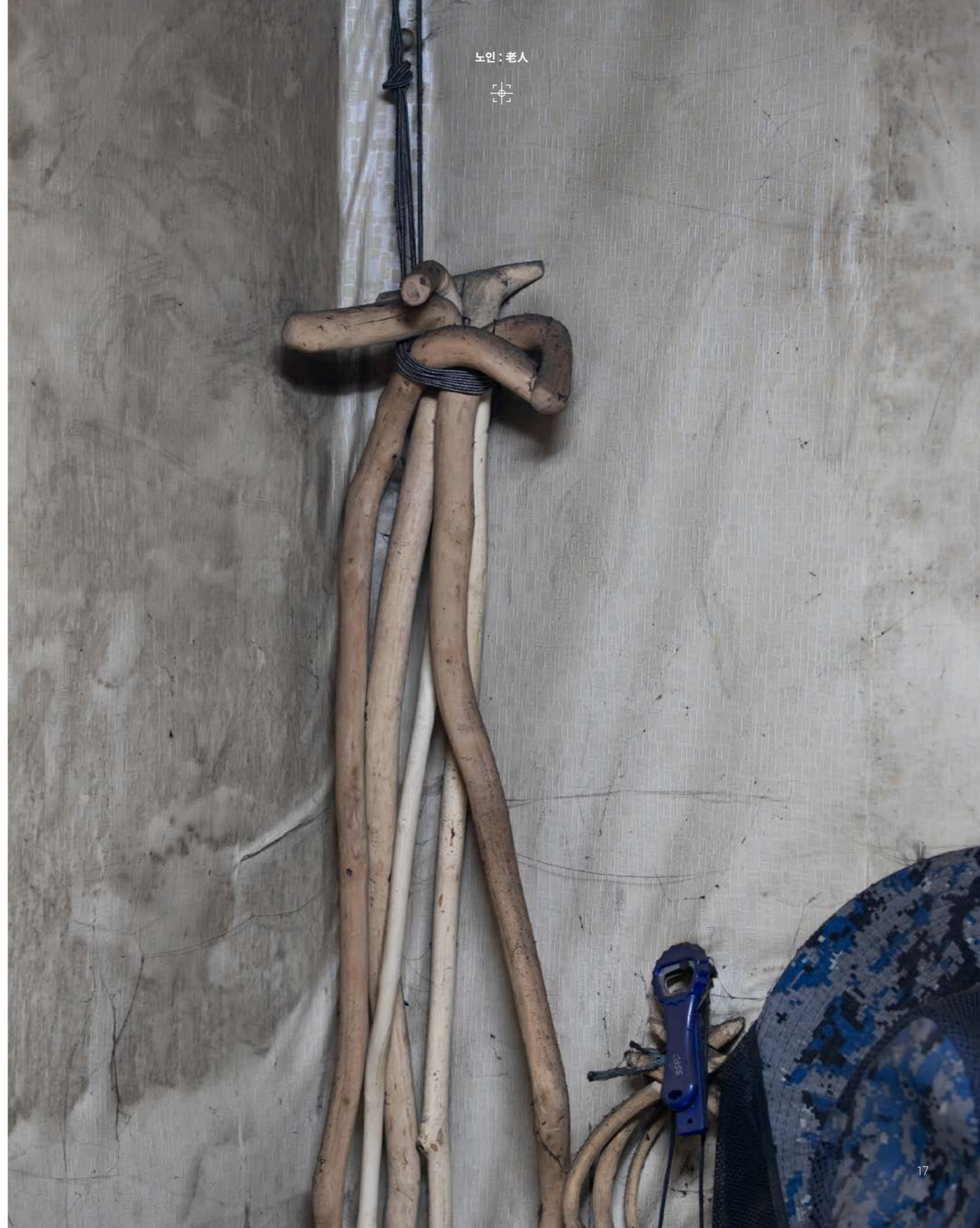


2021년 현재 한국은 노인인구 850만의 고령 사회다(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 5년 후인 2026년은, 노인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超)고령 사회(post-aged society)’로 진입한다. 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유난히 대한민국은 그 속도가 빠르다.

치매인구도 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치매 환자는 3초마다 1명씩 증가한다. 치매는 한국의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꼽힌다. 2025년이면 치매인구 100만 시대, 그런데다 노년의 삶과 관련된 지표마저 좋지 않다. 사회경제적인 조건에 따라 상위권과 하위권의 건강수명이 10년 이상 격차가 난다.

고령화는 곧 ‘늙고 아프고 두려운’ 사회로의 질주처럼 보인다. 늙은 왜, 언제부터 고통과 불안, 공포의 동의어가 되었을까? 100세 시대가 축복이 아닌 재앙이라면, 경제 규모와 성장이 다 무슨 소용일까? 노년의 존엄을 지킬 지혜와 힘은 어디에 있을까?





노인 : 老人







나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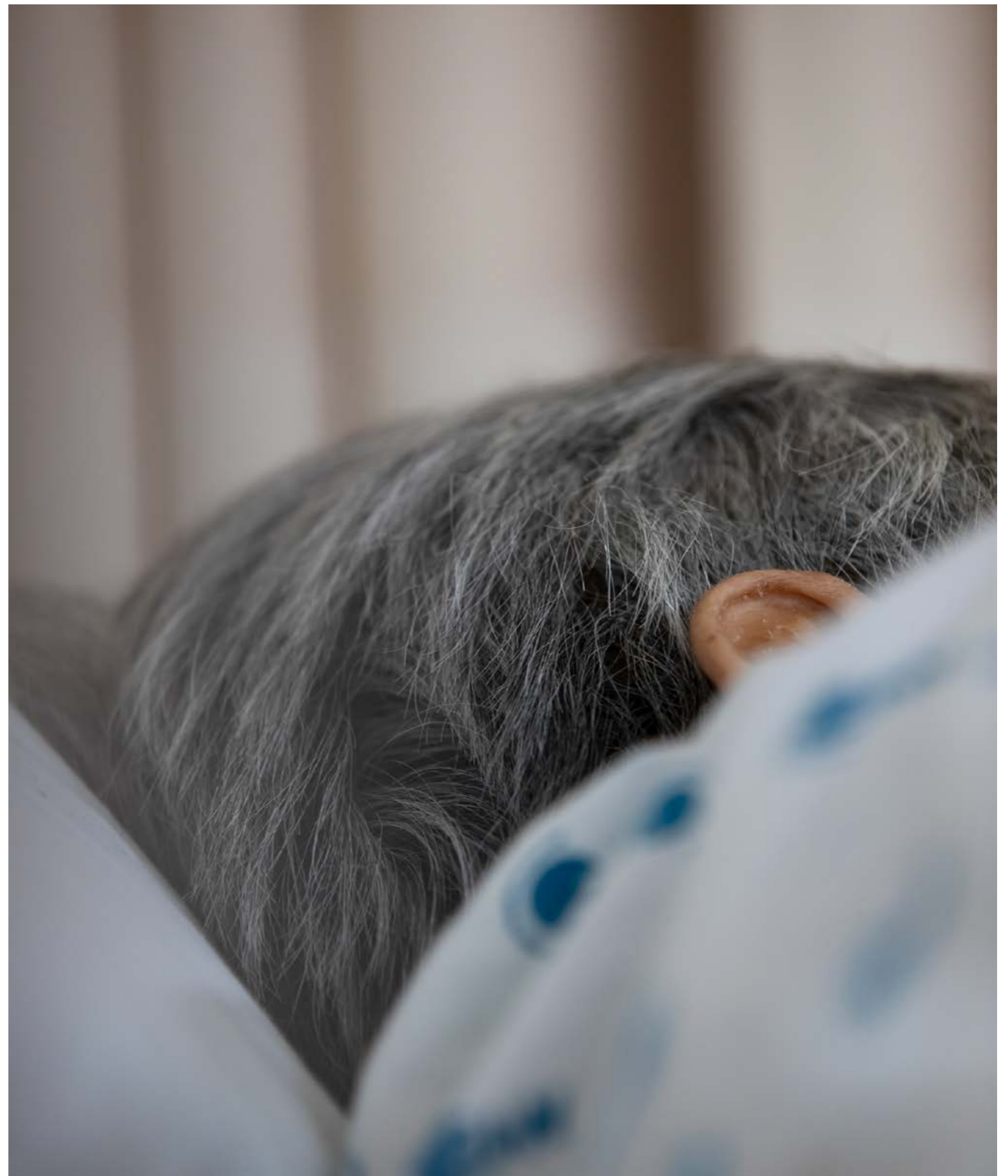
권나경, 송민정, 이창우, 양정아

사람은 가장 작은 단위의 움직이는 깰러리다. 습작들의 어린 시절, 왕성한 활동이 돋보이는 청·장년시절, 완숙함이 가득한 노년시절의 결과물이 그렇다.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한 작품으로 전시하는 것이 목표이리라. 특수 상황을 제외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체로 인간의 성장 체계는 건강하게 시작되고 약해지다가 마무리된다. 종교적 관점을 차치하고, 인생은 어쩌다 태어나, 자라고, 노인으로 살다가 떠난다.



젊은 건강을 자랑하다가 언제부턴가 이상한 증상들로 인해 의심과 두려움이 들려오는 것이 노화의 시작, 우리 모두는 '어찌다' 노인이다. 노부부가 함께 생활을 하든지, 반쪽을 추억하며 홀로 지내든지 낮은 상황이긴 마찬가지다. 지성과 지혜가 높아지는 만큼 외모는 험하게 변모한다. 얇아지고, 가벼워진다. 균형이 흔들리고 미세하게 닳아가고 있다.

홀로 서기하는 노인은 좀 더 불편하다. 늦은 밤 전기가 고장 나거나, 의자를 딛고 물건을 꺼내야 할 때, 열리지 않는 병뚜껑을 열어야 할 때는 슬프고 두렵다. 어두움이 두렵고 낙상이 무섭고 혼자 하는 모든 것이 공포다.





앞만 보고 자갈길, 모랫길, 가시밭길을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풀려 찬찬히 내려다보니 곳곳에 상처다. 거울 앞에는 분명 내가 섰는데 부모님의 얼굴이 겹친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안타까워할 겨를도 없다. 주저앉을 수도 없다.



나이가 들어도 '나는, 나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으로 나이 들고 싶다.



나에게 생긴 흰머리와 주름을 바라본다. 누군가 그랬지, 나무에게 나이트가 있다면 사람에게서는 주름이 있다고. 그 주름 속의 세월들을 어찌 다 헤아려 볼 수 있을까. 가장 평범하게 나이 드는 것이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살아내는 가장 힘들 것. 젊은 나날들에 감히 할 수 없었던 취미생활을 하며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



아프지 않고 나이 드는 방법은 없을까.





노인은 약하고 소외받는 존재이다. 노인이라는 것만으로 주위로부터 편견, 무시, 차별을 받는다. 노년층이 사회적 가치가 낮고 경제적 부담을 가한다는 인식은 상식으로 굳어졌다. 노년 차별을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노인 스스로 차별하는 경우이다. ‘늙었으니까’, ‘짐만 되는데 조용히 집에 있어야지’ 등의 말은 대부분 노인의 입에서 나온다. 노인 본인부터 스스로를 차별하는 사회라면, 노인에 대한 편견을 없앨 방법은 없다. ㉞



노년:老年





양평군 양서면 부용리

송보라

1월 말, 미리 주문한 양갱을 챙겨 부용리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양평으로 향했다. 부용리 마을회관의 닫힌 문 앞에서 코로나 상황을 다시 한 번 실감하고 있을 때쯤 데레사(김현숙) 농부가 마중을 나왔다. 할머니들의 동생이며 제자이며 친구인 50대 후반의 그는 이홍교 할머니와 양승임 할머니와의 만남을 부드럽게 이끌어주었다.

홍교 할머니는 우리를 호탕하게 맞아주셨다. 손님 대접하신다고 준비하실까 일부러 점심시간을 피해 오후에 갔는데 홍교 할머니의 부엌에서는 음식이 끊임없이 나왔다. 그렇게 많이 차려주시고도 먹을 게 없다고, 그래도 얼른 먹으라고.





밖이 내다보이는 큰 창으로 소녀 감성 뽐어내는 연보라색 옷차림의 승임 할머니가 보였다. 승임 할머니의 가방에서도 간식이 줄줄이 나왔다.

“울증이 와.” 승임 할머니는 이웃들이 집에 많이 놀러 오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가 찾아간 1월은 농한기였고 코로나 장기화로 마을회관도 닫혀 있었다. 삶의 에너지를 주던 가족과 친구, 이웃들의 접촉과 소통이 위험하고 자제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때, 지역 청년들과 중년의 농부와 어울려 살던 활기찬 생활이 그리우신 듯했다. 다행히 데레사 농부와 홍교 할머니는 자주 만나 시는지 입말을 주고받는 연대가 살가웠다.



데레사 농부는 승임 할머니의 밑에서 농사를 시작해 두 할머니에게 농사를 배운 할머니들의 제자이자 동네 동생이고, 술친구다. 버스를 타고 한참 가야 병원이 나오는 이곳에서, 데레사 농부는 종종 할머니들을 태워 병원에 모신다. 할머니들을 찾아와 음식을 나눠 먹고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도시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관계이기에 더 따뜻하고 돈독하게 느껴졌다.





여름이면 홍교 할머니 집 앞 평상은 정거장이 된다. 길 가다가 더운 사람은 앉아서 선풍기도 켜고, 할머니에게 드릴 먹을 것, 쓸 것들을 두고 간다. 날이 따뜻해지고 이어 여름이 오면 우리도 그 평상에서 옥수수 베어 물고,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 들이켜자고 약속했다. 단절과 비대면이 익숙해져 가는 요즘, 단비 같은 그 약속을 기다리며 할머니들을 떠올린다. ❶







“양승임 할머니”

양승임 할머니는 김현숙 씨가 처음 농사를 시작할 때 밭을 빌려준 분이다. 할머니는 배려와 인애(仁愛)가 넘쳐난 분이다. 이분의 ‘인애하심’은, 초보농부의 유기농 작물을 위해 뜨거운 여름날, 당신 자신의 비닐 하우스 문을 앞뒤로 꼭꼭 닫고 그 안에서 제초제를 뿌리신 일로 ‘수줍게’ 드러났다. 혹여 자신이 뿌리는 제초제가 공기 중에 번져 유기농으로 키우는 저쪽 작물들에게 닿을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하셨던지.

© 『나는 니가/내가 애뜻해』, 김영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홍고 할머니”

막걸리를 즐겨 드셔서 ‘막걸리 할머니’로도 알려져 있지만, 씩씩함이 대단해서 마을 청년들은 그를 ‘장군’이라고 부른다. 그는 서울에서 내려와 부용리 근처에서 촌살이를 하는 청년들이 가장 ‘되고 싶어 하는 할머니’다. ‘할매력’에도 통 큰 스케일과 할머니 그룹을 이끄는 리더십으로 소개되었다.

홍고 할머니는 방을 알아보는 도움부터, 농사 지을 때 무엇을 언제 심어야 하는지, 언제 갈무리를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지침들을 알려준다.

© 『나는 니가/내가 애뜻해』, 김영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홍교 할머니도, 승임 할머니도 멈추지 않고 밭 일을 계속한다. 홍교 할머니는 이가 몹시 아파 씹지를 못하시니 막걸리를 마시면서, 승임 할머니는 허리의 통증이 심해 보행보조기에 의존하면서, 밭이 있으니 짓는 것이다. 자식들은 애가 타서 화도 내보지만 할머니들을 밭에서 떼어놓을 수는 없다. 설득도 감시도 다 소용없다. 자식들에게 거짓말을 해 가면서, 몰래 한다. 자식들이 제일 반기는 거짓말은 '데레사와 술 마시며 놀고 있다'다. 그만한 알리바이가 또 없는 것이다. 홍교 할머니 자식들도 승임 할머니 자식들도 김현숙 농부와 그의 어머니에게 고마워한다. 가능한 잘 하려 애쓴다.

© 『나는 니가/내가 애뜻해』, 김영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차별은 거창함보다는 사소한 삶 속에서 누리
지 못할 때 더 강하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손가
락 몇 번 까딱이면 끝날 공과금을 내러 은행까
지 가야 한다. 무인 판매기의 여러 음식 중 어
떤 것을 먹을까 고르는 우리들 사이, 전쟁통을
방블케 하는 명절 열차 예매 사이트에도 그들
의 자리는 없다. 살아간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보다 끝없는 바다를 단
지 표류하는 것에 가깝지 않을까. 오랜 시간 휩
쓸려 왔던 그들에게는 이제 표류라는 단어조
차도 버겁다. ㉞



동명:看護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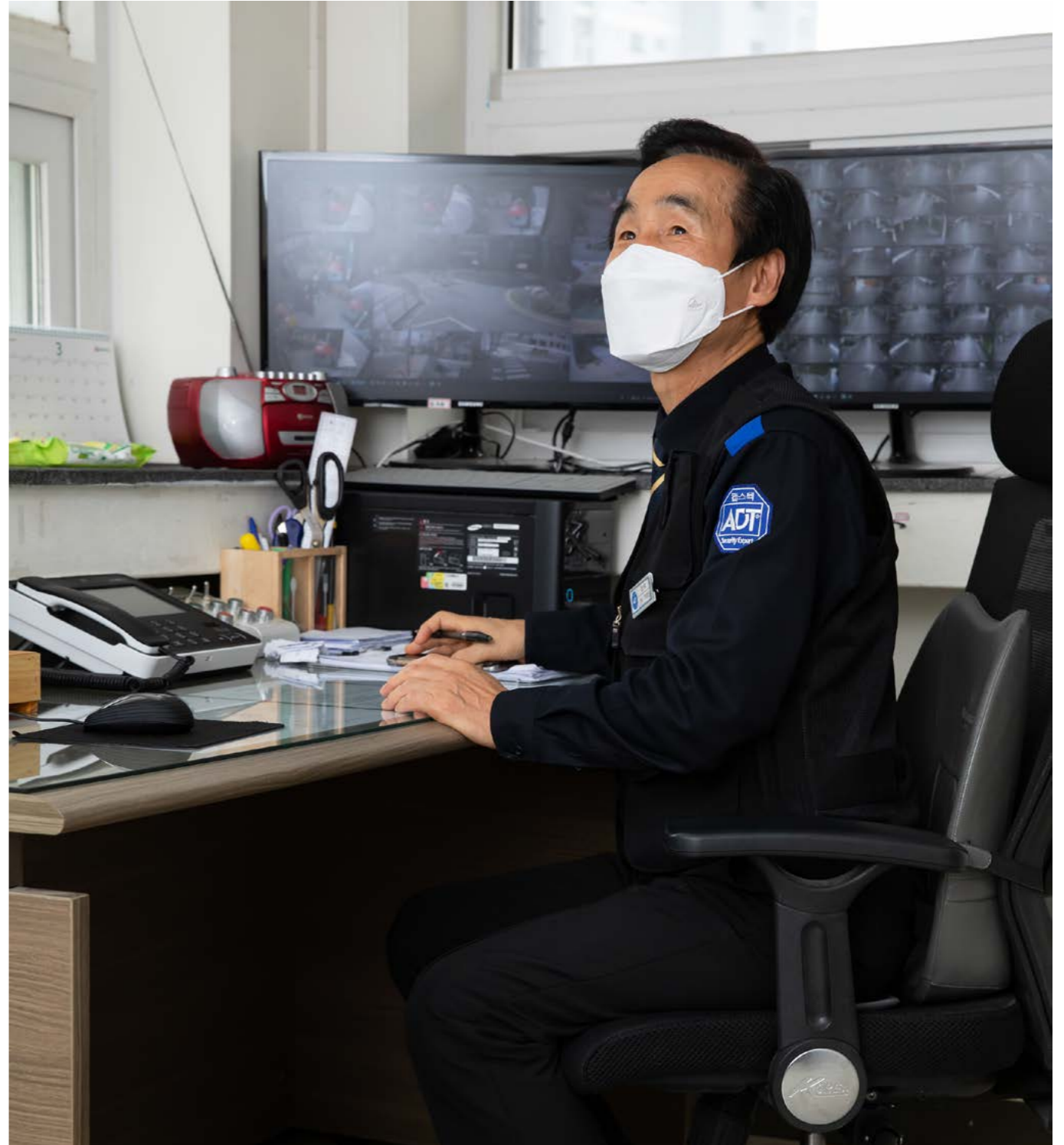






나이 들면 온화한 눈빛으로 살아가고 싶었는데 백발이 되어서도 핏발 선 눈으로 거친 생계를 이어 가게 될 줄은 몰랐다.

© 『임계장 이야기』, 조정진, 후마니타스



최재권



박홍신



김종삼



주자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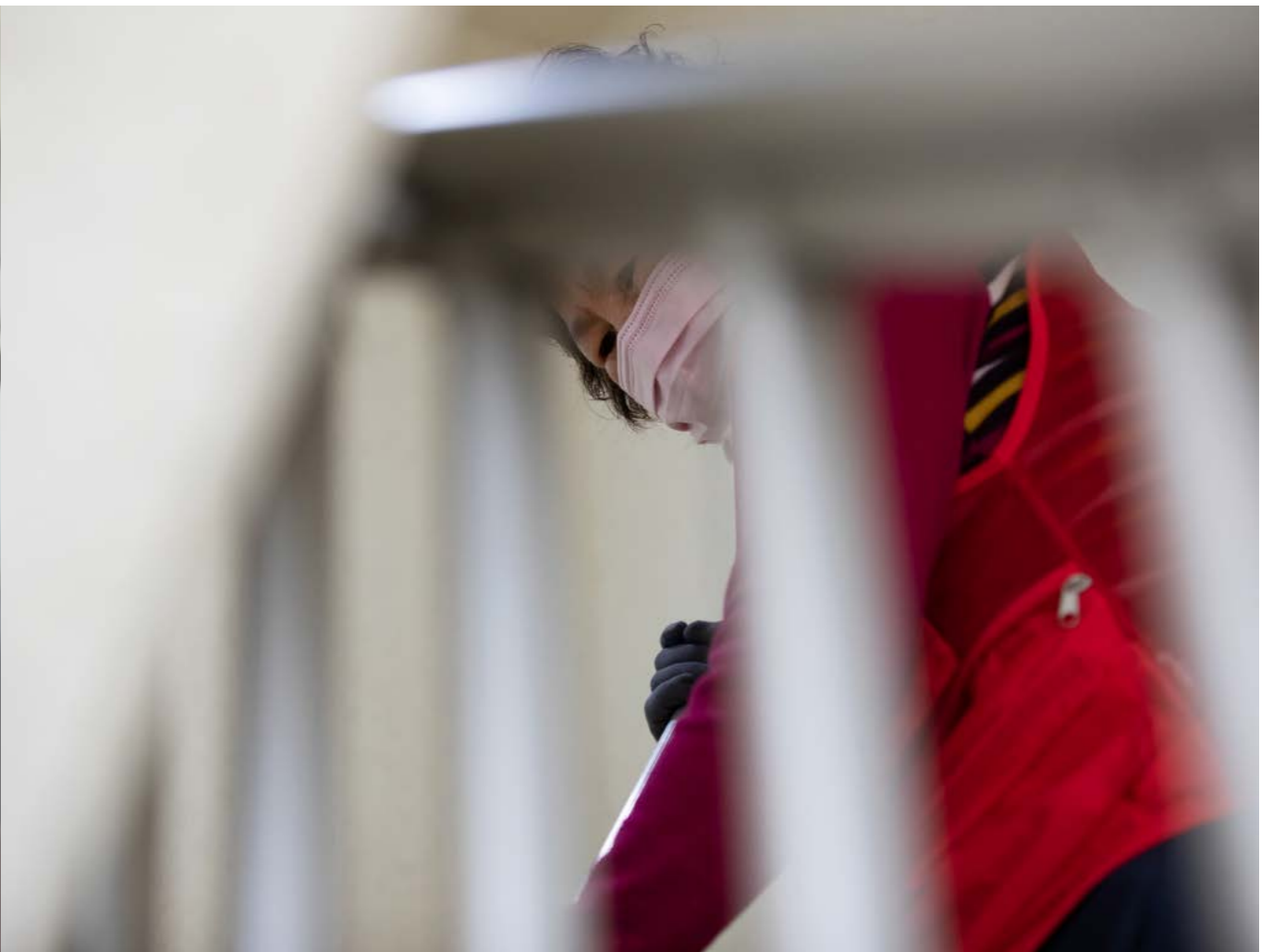
노들야학 ‘들다방’ 급식소 조리사 이정임님

정택용

“이곳이 제 첫 직장이나 마찬가지예요” 1954년생, 68세의 이정임님을 만났다. 기초연금을 처음 두 손에 쥐었을 때, 뉴스 앵커가 설 틈 없이 ‘고령화’를 말할 때 자신은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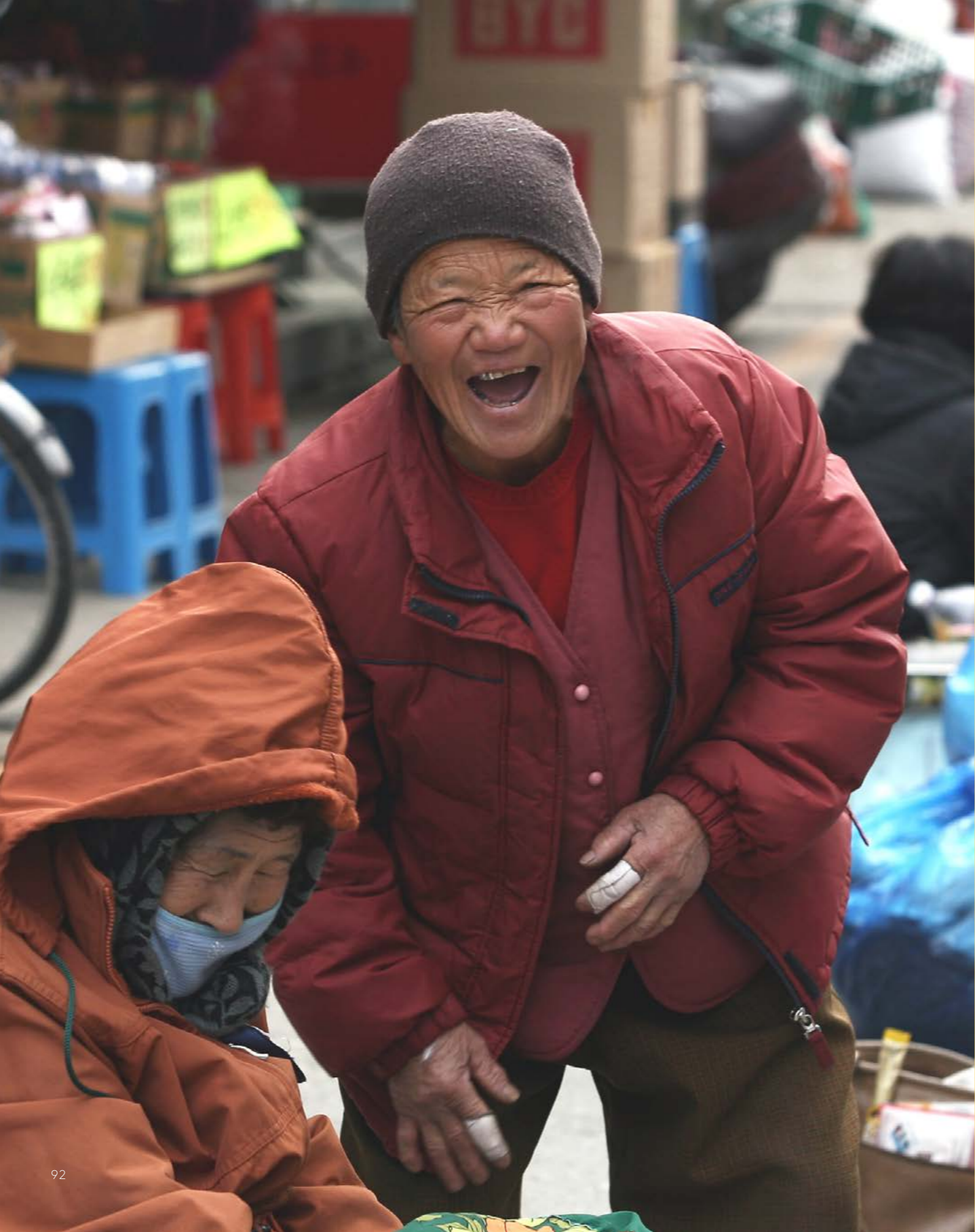
지금도 여전히 이정임님은 ‘나는, 노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전업주부로 수 십년을 살다가 얼마 전 용산 국방부 웨딩홀에서 주방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다. 출퇴근 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것, 대화할 수 있는 동료 있다는 것, 자그마하지만 ‘나의 월급’이 생긴다는 것은 이정임님의 삶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N**











돌봄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곱슬머리를 하고 있는 중년의 여성이 아이와 노인을 동시에 안고 있는 이미지가 떠올랐다. 우리 사회에서 '돌봄'은, 한 중년이 절대적으로 무르고 약한 자를 감싸고 있다. 돌봄은 누구에게 필요할까. 불평등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하다. 돌봄은 언제 필요할까. 돌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정할 수 있어야 한다. ❶

질병 : 疾病



모델명	TM-130
정기가격	49,800원
판매가	41,500원



화양모재 치매 어머니와 이종민 교수

송보라

전북 완주군 화산면, 차 없는 찾아가기도 어려운 곳에서 치매 어머니와 함께 사는 이종민 교수를 만났다. 어머니가 살던 옛집 옆에 '유연당', '화양모재'를 지어 가까이서 27년생, 95세의 어머니를 돌본다. 좋아하는 게 분명하셔서 돌보기 편하지만, 과거의 상흔이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부딪힐 때도 많다고 한다. 너도 나도 돌봄 시설을 찾아보는 때, 이종민 전 전북대 교수는 형과 함께 번갈아서 어머니를 모신다. **N**







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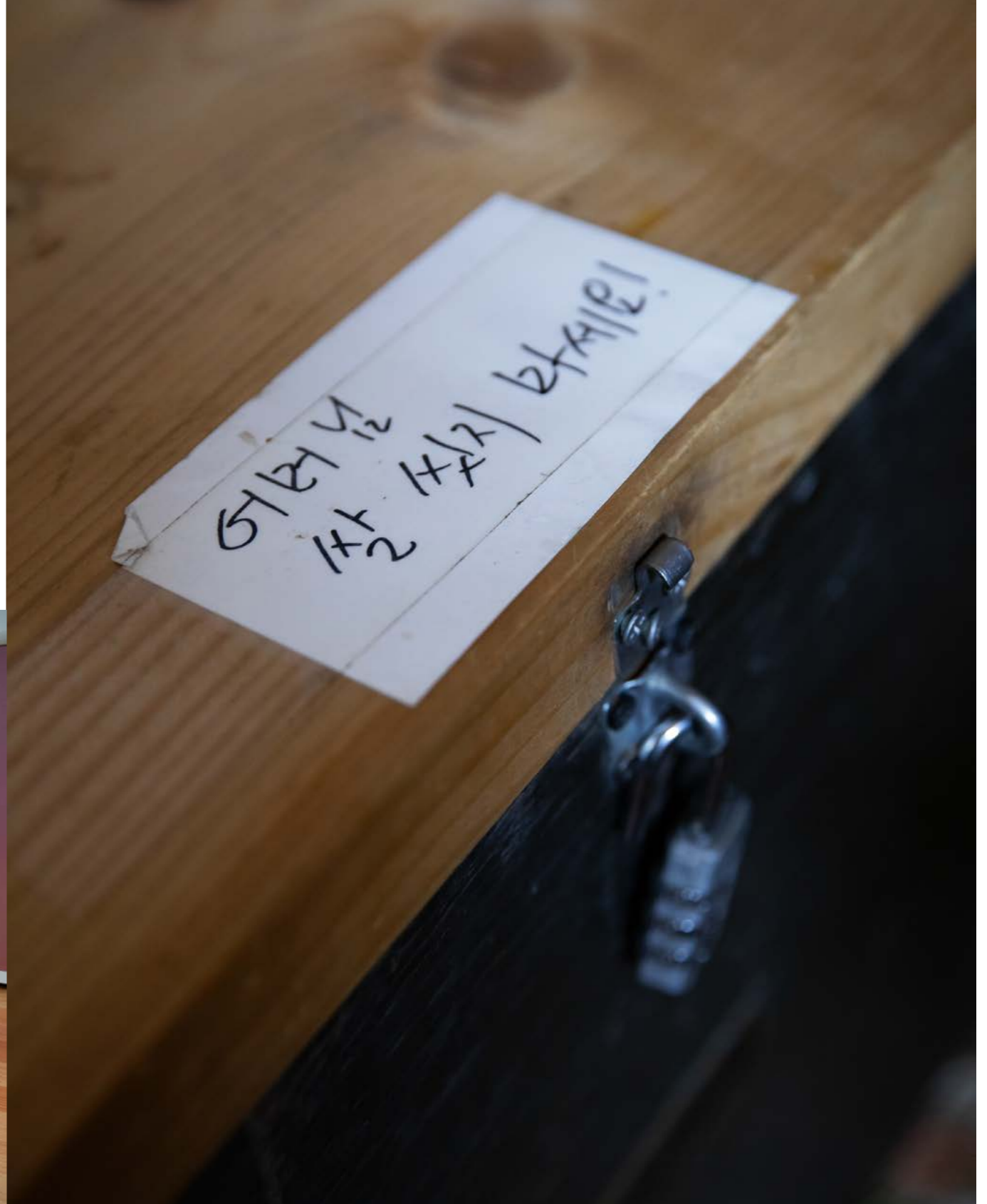
가슴에 피라고 들어보셨어요? 가슴 통증이 오면 칠(웃나무 수액)을 내서 드셨어요. 그게 딱 박혀서 ‘나는 1년이면 몇 차례 칠을 먹어야 한다.’고 해요. 상흔처럼 남아 있어요. “요새 칠을 안 먹어서 너무 힘들어.” 어제 드시고도, 아침에 드시고도 잊으세요. 이게 전혀 없으셔서 잊몸으로만 음식을 드시는데 그건 국물이라 잘 드시죠. 칠에는 거부반응이 없어서 가끔 으나무나 꾸지뽕으로 국물을 해서 드리면서 칠이라고 해요. 확실하게 좋아하는 게 있어서 모시기가 편한 거죠.

음식은 쉬워요. 하지만 속상할 때도 있죠. 저녁 같이 먹고 잠깐 TV를 보는데 어디가 아프다면서 돈을 꺼내서 또 칠을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땐 잠깐 약이 오르기도 해요. 달력에 ‘칠 드신 날’ 하고 적어놓은 적도 있는데, 뭐 장난 같아요. 한 달에 25일이 드신 날이고, 계속 똑같이 얘기하시니까.



쌀씻기

칠 뿐만이 아니라 대문 닫는 것, 쌀 씻는 것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밥이 없는 것에 대한 공포가 강한데, 밥솥에 밥이 얼마 없으면 쌀을 씻는데 옛날 밥 하던 버릇이 있어서 엄청 씻어요. 옛날에는 우리 집에 12~15명까지 살았으니까 밥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쌀을 엄청 씻는데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뒤통수를 만들고 자물쇠를 달았어요. 그거로 몇 달 힘겨루기를 했죠. 화난 표정으로 그것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저러다 병나겠다 싶어서 풀었는데, 뒤통수 위에 “어머님, 쌀 씻지 마세요.” 써놔요. 그런데도 소용이 없고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왜 쌀 씻는 것가지고 이러나 할 정도로 과격하게, 말 듣게 하려고 몇 번을 화를 내봤어요. “그럼 나 갈 거야! 그럼 엄마하고 못 살아!” 해도 소용없어요. 한동안 안 씻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보호사가 “교수님만 안 계시면 바로 씻어요.”라고 하더라고요. 노래를 하시면서 씻더라고요.





오중소태

젊어서의 아픔이 오래 남나봐요. ‘내가 소변을 못 보나?’ 계속 생각하시고, 잘 보시는데도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도 잊어버리고 또 가요. 계속 가시면서 안 나온다고.. 공황 상태가 되는 거죠. 병원에 데려다달라고, 소변을 못 봐서 죽겠다고. 제가 집에 없으면 동네 이장한테 쫓아가요. 나 병원에 좀 데려가 달라고. 코로나 오기 전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동네에서 우리 사정을 아니까, 그럼 저한테 연락오고 형님한테도 연락오고. 그럼 저희가 모셔요죠. 무슨 약이라도 계속 드려야 안심을 하셔서 한약방에서라도 뭐라도 지어와서 드려요.





"종민 미국 안 가요!"

27년생, 벌써 95세의 어머니지만 허리도 꼳꼳하고, 글씨도 읽으시고 비교적 건강하세요. 그런데 한번은 어머니 셋째 아들이(제가) 미국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저는 말한 적이 없는데. 제 아들, 딸이 미국에 있어서 제가 미국에 가고 큰형님이 내려오셔서 농사를 지으면서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다고 말했대요. 그러고는 막 우셨죠. "저 미국 안 가요!" 하면 "안 가? 아! 잘됐다, 잘됐다." 하시고는 조금 있다가 또 미국 간다고. 그걸로 몇 달을 온 식구를 괴롭혔어요. 여동생들 오면 평평 울면서 너희 오빠 미국 간다고. 그래서 그것도 또 써놨잖아요. "종민 미국 안 가요!" 라고. 달력에다 써놨더니 수시로 그거 보고 읽으세요.





요양보호센터에서의 경험

저희 집 대문이 비탈 위에 있는데, 대문 잠그시다가 저 아래까지 구르신 거예요. 몸도 찰과상을 많이 입었고 머리 쪽도 좀 다치셨죠. 그 때 큰일 날 뻔 했어요. 그 때는 저희 집 뒤쪽에 사람들이 안 살았는데, 그래도 한 분이 지나가다가 어머니를 발견한 거예요. 몇 달간 입원하셨죠. 퇴원하시고 집으로 모시는 건 어렵겠다 싶어서 요양보호센터에 2~3년 정도 모셨어요. 지금은 많이 괜찮아지셔서 집에서 모시죠.



국가의 역할

국가에 정말 감사해요. 국가가 치매를 전적으로 책임질 순 없겠지만, 기본적인 것들을 국가에서 해주면 자칫하면 가정 내에서 의가 상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부담이 덜해요. 지금 어머니는 상태가 괜찮아서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2시간 정도 오고, 일주일에 한번씩 목욕봉사 하러 오세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개인을 고용을 해서 돌보게 하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치매환자들은 ‘도둑년’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끊임없이 의심하기 때문에.. 개인이 고용하면 그런 부분의 해결이 어렵지만 기관에서 하면 유연성이 생기는 거죠.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니까.







치매라는 질병을 개인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어렵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가족이 없거나, 혹은 가족이 있다고 해도 관계가 단절되어있는 경우 국가의 개입 없이는 치매 환자는 방치될 수밖에 없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치매환자가 치매에 걸리면 자신에게 매달 들어오는 수급비를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 적은 수급비마저 착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기도 한다. 치매의 증가는 마치 해일과 같다. 치매환자의 돌봄은 역시 국가 책임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㉞







요양보호사

김영숙

친구가 요양보호사 일을 했는데 저도 할 일을 찾다가 하게 됐어요. 제가 올해 58세인데 나이가 있어서 할 만한 게 없어서 물어봤거든요. 괜찮다고 하기에 기저귀 케어는 어떠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쁘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겨놓으면 예쁘다고. 친구가 있던 구립요양원에 지원을 하면서 3년 근무를 했어요. 들어가서 보니 친구 말대로 어르신들 깨끗하게 목욕시켜놓으면 예뻐요. 제 적성에 맞았어요. 마음이 특별히 가는 분도 있고요. 시간이나 날씨에 따라 상태가 다른데 아침에는 그래도 정신이 맑아지셔서 “아이고 선생님 감사해요.” 하는 소리에, 그 맛에 계속 했던 것 같아요.

혈관성 치매, 편마비 어르신들이 오세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 반, 못 움직이시는 분들 반 그 정도 돼요. 80%는 기저귀를 차요. 안 하시는 분도 가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실수를 하실 때도 있고요. 치매도 증상이 다양해서, 지금도 집에 가신다고 짐 싸서 문 앞에 나와 계신분도 있대요.

일하면서 보호자들이 내 부모를 더 우선해달라고, 소홀히 하는 건 아닌지 의심할 때 속상했죠. 어르신들 중에 힘도 세고 폭력성 있는 분들도 있어요. 머리채 잡고, 내가 돈 주는데 왜 안 하나 이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보호사들을 다 도둑으로 보시고 얼마나 소설을 잘 쓰시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었지만 오프인 날 산에 가서 스트레스 풀고 돌아오고 했어요.

그런 것 말고는 일할 때 어려움은 없었어요. 처음에 적응할 때는 힘들기는 힘들죠. 애기들 유치원 가면 선생님들과 적응하듯이, 요양보호사 2명이 어르신 16명을 맞춰야 하거든요. 16명을 공평하게 보고 산책시켜주고, 일을 찾으면 할 일이 참 많아요.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명에서 16명을 다 보려면 부족하긴 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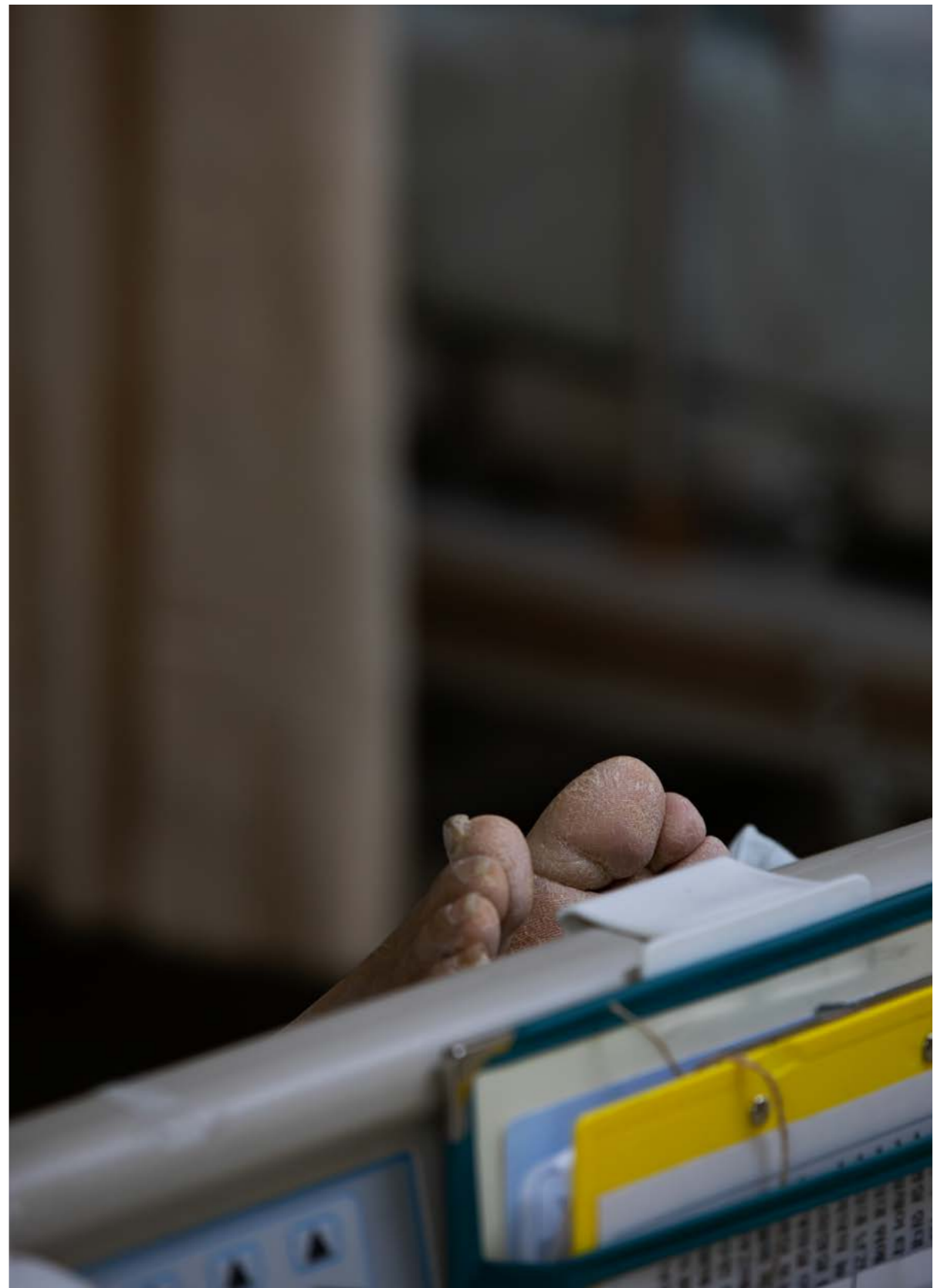
거실이나 방 청소도 다 해야 하고, 오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시켜주고요. 체격 크신 분들 이동할 때 힘들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했는데, 침상이 자동이라서 괜찮았어요. 목욕할 때도 누워서 씻기는 건 편했어요. 목욕시키고, 기저귀 갈고, 밥도 직접 보조를 해드렸어요. 저는 중증환자들이 좀 많은 곳에 있어서 처음에는 힘이 들었지만, 지나와서 보니 괜찮았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안 되잖아요. 자식들이 나를 여기에 버렸다 하시는 분도 있고. 옛날 같으면 역병이 도는 거라 면회를 못해서 그 대신에 영상통화를 해주는데, 또 보고 싶으면 나를 또 버렸구나 하는 우울증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유리창으로 면회를 한다고 하지만, 많이 오지는 않는다고 해요.

특별히 기억나는 분들은 두 분 정도예요. 요양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면회에 동행했는데 할머니가 자식을 보더니 반가워서 그러는 거예요. 딸이 “엄마~” 하는데 눈물이 나와서 못 보겠는 거예요. 지금도 그 분이 궁금하고 보고 싶고 생각나요.

다른 한 분은 군인이었던 할아버지예요. 6.25 참전용사로 연금이 나온 분이었는데, 할아버지는 연금이 나오는 날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그 돈을 며느리가 다 가져가면서 1년 치 요양원 비용을 안 내는 거예요. 연금이 나오는데 본인은 10원도 못 쓰고, 옷도 1년 365일 회색 운동복 3개를 돌려 입고요. 보호사들이 집에서 남편 안 입는 옷들 가져다 드리고 그랬어요.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돈가스, 콜라라고 해서 사드렸더니 2시간에 걸쳐서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돌볼 사정이 없다가보다는 마음이 없는 보호자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마음에 계속 남아요. ㉠









호스피스 병동 보호자

최다솜

작년 5월 말, 동생이 말기 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작년을 못 넘길 거라 했는데 걸어 다니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다가 이제는 병상에 누워있지만 한다. 가족이 없는 동생을 90세 노모가 병간호하기 힘들어 3살 터울 형이 옆을 지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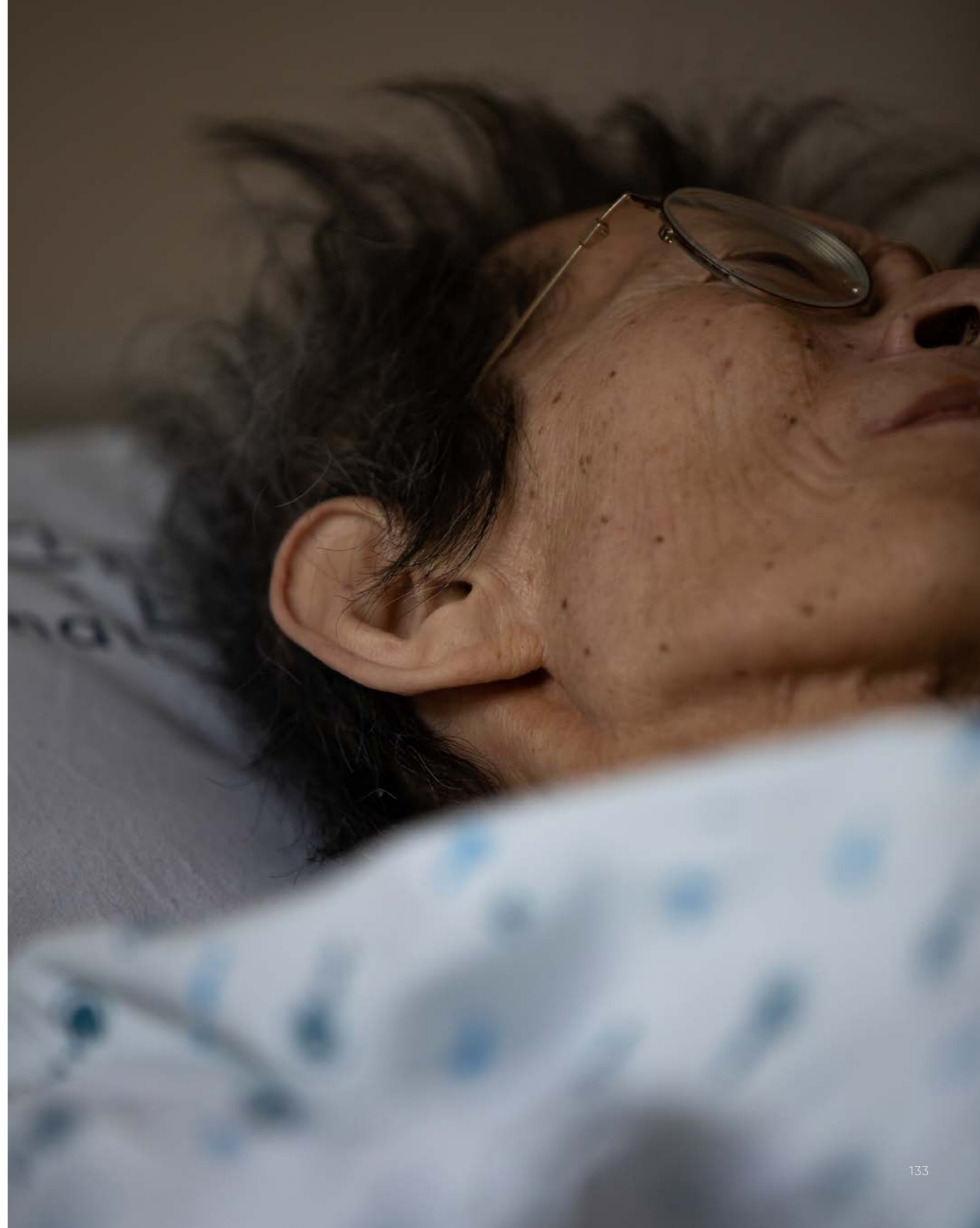
“지금 상태는 완전 애예요 애. 잠투정 하는 거, 밤에 깨서 새벽에 웅얼이한다 그러죠? 똑같애. 나는 한 90% 알아보고, 열나고 상태 안 좋을 때는 형이라는 것도 모르고 못 알아봐. 열이 떨어지면서 내가 형인 건 기억하는데 이름은 또 몰라. 열나고 그럴 땐 자기 이름도 몰라.”

지금은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처음 들어왔을 땐 휠체어 타고 왔다 갔다 했다고. 머리로 감길 수 있고 했는데 본인 귀찮고 몸도 아프고, 자기 몸 돌리는 것도 아파서 신음소리 내거든, 허리가 아프거든요. 진통제 달라는 얘기를 전엔 했었는데 (지금 아파해서) 즐까 했더니 절대 안 맞겠대요. 아까도 한 두어 시간 즐까 즐까 했는데 나중엔 결국 달라고 하더라고. 본인이 뭘 원하는지도 몰라.”

가족에 대한 사랑,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는 것, 병 앞에서의 걱정과 두려움. 동생을 간병하며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형에게서는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 보였다.

“내가 안 보이면 두려운지, (보호자 침대에) 누워있으면 안보이잖아요. 그러면 형 어디 있냐고 막 찾아, 전화도 하고. 밤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전화 와서 ‘형 어디 있냐고... 근데 지금은 전화 거는 방법도 모를 것 같애. 가만히 나두면 혼자 (아파하고) 저러고 있는 걸 볼 수가 없잖아요. 쓸데없는 얘기라도 계속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거지 뭐...”

형의 이야기가 끝날 무렵 동생은 또다시 형을 찾았다. 항상 옆에 있어 주는 형을. ●















노인이 많아지면 건강보험료를 낼 사람이 준다. 건강보험에 기반한 의료공급 시스템, 병원 중심 의료시스템 자체에 변화가 필요하다. 고급 기재를 갖춘 병원이 병을 고친다는 생각, 건강관리는 병원에 꼬박꼬박 다니는 거라는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초고령사회가 요구하는 의료에서 병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현실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고혈압과 당뇨병에 관절이 상해 걷지도 못하고 혼자서는 밥도 제대로 못 떠먹는 노인들을 돌보는 일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사람답게 품위를 유지하는 것, 시간 지켜 약 먹고 생활습관을 조금씩 바꿔 가는 정도이다. 돌봄은 병원 모델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



“ 왕진의 성공 여부는 정량화된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에 있다. ”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지만 어르신 한 분을 건강하게 지키는 데도 온 마을
이 필요하다. 한 사람의 삶을 하나의 이야기라고 할
때 우리 사회는 이야기의 시작에는 관심이 많으나
이야기의 마무리에는 별 관심이 없다. 하지만 아이는
시간이 흘러 노년이 된다. 그 이야기는 결국 나의 이
야기가 된다.”





어떤 요양원도 집을 대신하지 못하며 어떤 요양보호사도 가족의 보살핌을 대신해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대부분은 집에서 가족의 보살핌 속에 죽지 못한다. 이유가 뭘까? 가장 중요한 건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하반기에 마비인 사람과 두 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만나야 한다. 누가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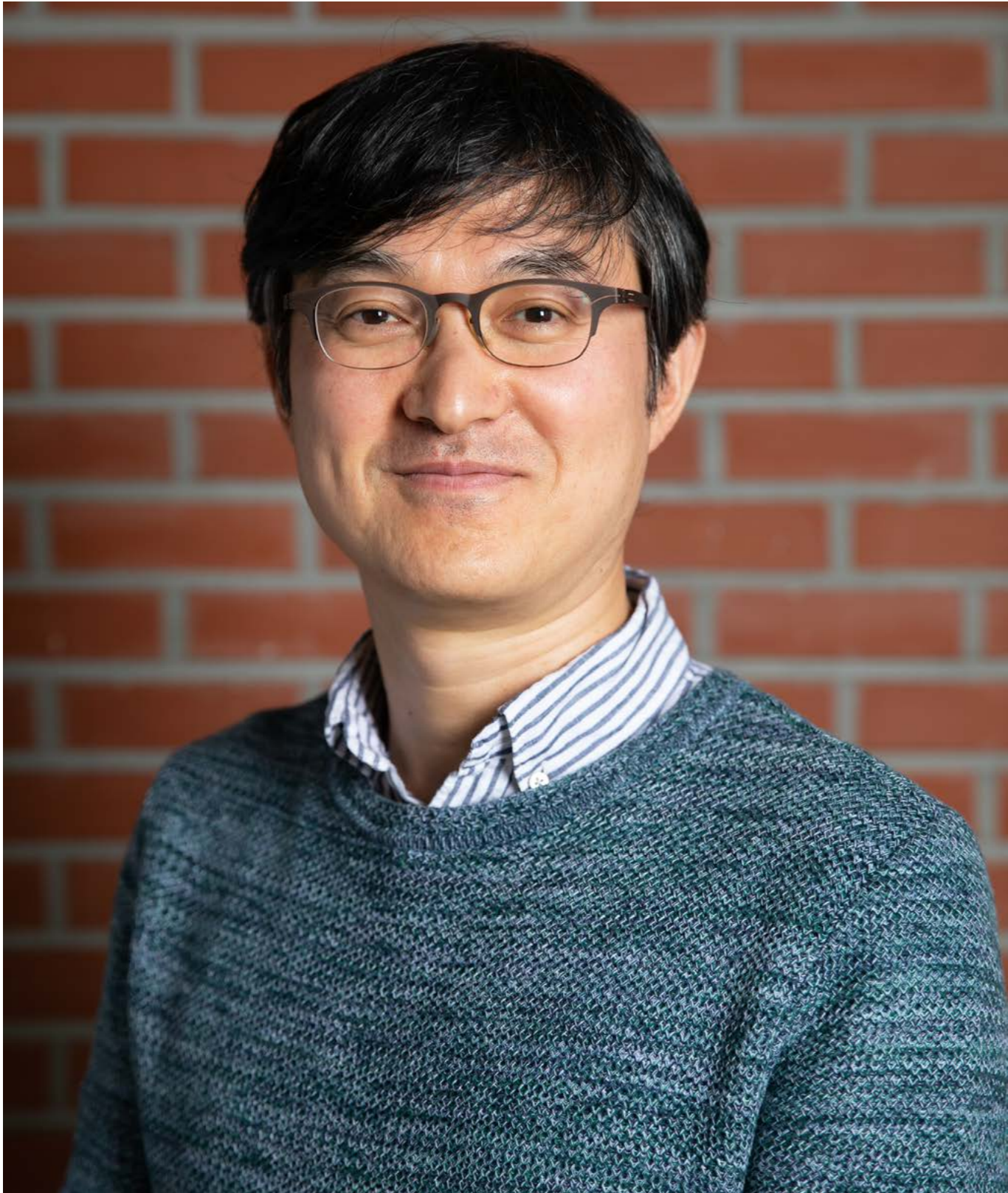


세상의 중심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고통받는 사람'이다. 쓰러져가는 택배 노동자들의 삶이 변할 때 우리 삶의 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듯이 고통의 중심은 이 사회에 필요한 변화의 중심이 될 것이다. 더 젊고 그래서 덜 위험하고 더 자유로운 세대가 어르신들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도 모두 운이 좋으면 노인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여성의 돌봄 노동으로 유지되는 나라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송 할머니 같은 분들의 간병 노동이다. 할머니의 집이 요양원이고 할머니가 요양보호사였던 셈이다. 일정 정도의 교육 수준이 필요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제도는 무학자인 할머니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할머니는 국가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지불받지 못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급의 요양보호사로 남은 것이다.





우리에겐 가족을 간병하지 않을 권리가 필요하다. 그 권리를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가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내가 그를 간병하지 않더라도 사회가 그를 간병해줘야 한다. 만약 내가 간병을 선택한다면 사회가 치러야 할 공동체의 비용을 아무런 조건이나 장벽 없이 나에게 지불해야 한다. 그래야만 선택할 수 있다. 간병받는 사람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인이나 가족의 '간병하지 않을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공론화되고 있는 ‘지역의사제’란 이름은 수정되어야 한다. 문제의 본질은 지역에 머물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공공의료에 머물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의사제가 아니라 공공의사제이며 10년 뒤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 돈을 더 들여서라도 병원에 가기 힘든 시골 동네에 왕진 갈 의사를 뽑고 마을회관에서라도 진료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지역의사제가 자리를 잡는 데 필요한 10년, 20년 뒤는 기다리면 되는 시간이 아니다. 마을의 어르신 중 상당수가 그때는 이미 돌아가시고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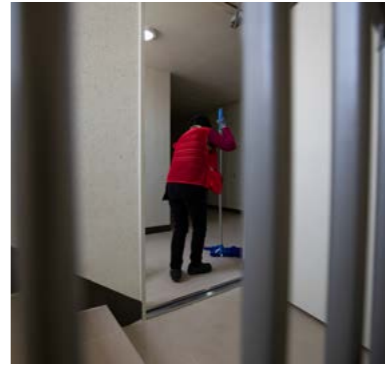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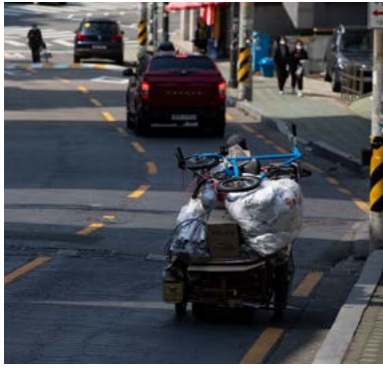






그렇다. 의사들의 힘은 의료의 공공성에서 나온다. 아무나 의사가 될 수 없어서 의사가 힘이 있는 게 아니다. 모두가 의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사들에게 힘이 생기는 것이다. 정부가 의사들에게 군 입대를 공중보건의로 대체할 수 있게 허용한 것도, 의대생들이 의사고시를 다시 볼 수 있는 것도 공공의료에서 일할 단 한 명의 의사가 아쉽기 때문이다. ❶







코로나 대유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끝을 볼 수 있다면, 그 끝에도 여전히 고령화하는 사회일 것입니다. 늙고 가난해서 감염병에 더 취약했던 사람들, 요양병원과 폐쇄병동에서 하릴없는 죽음에 내몰렸던 그 현실을 바꾸어낼 의지와 실천이 그 끝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사망자의 99%는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어떠한 새로운 보건의료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고령화는 최우선 고려해야 하는 우리 세계의 기본 조건이 되었습니다. 집단시설화하고 있는 돌봄의 시스템은 정당한지, 현실과 문화를 탓하지 말고 진지하게 다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노인 뿐 아니라 생애주기 모든 연령대의 삶의 조건들을 총체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래오래 산다는 것이 축복이면 좋겠으나 인생은 위험과 불안의 연속에 더 가까운 듯합니다. 잘라낼 수 있는 부분 잘라내고 투약해서 치료하는 것만 반복하면 병상에 누워 밥 대신 약으로 버티는 것뿐, 산다고 다 삶을 이야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소수에게 축적되는 부와 권력이 다수의 평화롭고 안전한 삶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돌이켜보면 참 부질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보건의료는 무엇을 위해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수의 시민이 건강한 육체와 마음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젊음과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지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이런 근본적인 바람과 희망에 국가와 사회가 성찰하고 개입하며 제도와 규범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민 건강의 총체적 책임을 지는 국가중추의료원으로서 더 건강한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늘 한발 앞서 고민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개별 환자 치료를 넘어선 삶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체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백 년만의 감염병 대유행의 터널을 지나면서 또 다른 100년, 더 나은 삶의 조건에 대한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고령화에 대한 대처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일상의 건강한 삶을 위한 담대한 변화, 그것이 소위 '코로나 이후(post-corona)'의 과제입니다.

삶이 축복이 될 수 있으려면 먼저 나이 들부터 축복이어야 합니다.

2021년 6월, 국립중앙의료원장 정기현





Copyright ©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이 이 책에 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동의 없이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MAGAZINE OO VOL.2

나이가 들다
Aged

2021년 7월 1일 초판 1쇄 발행

펴 낸 곳 국립중앙의료원

펴 낸 이 정기현

기획제작 기획조정실 소통기획팀

편집디자인 양수인

사 진 정택용

한희재

글 최다솜 소통기획팀

송보라 미래기획팀

김수미 응급의료정책개발팀

권나경 원무팀

송민정 간호부

양정아 간호부

김정숙 간호부

이창우 감염병자원관리팀

이연지 중앙치매센터

인 쇄 으뜸프로세스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전 화 02-2260-7172

이 메 일 nmcpr@nmc.or.kr

등 록 제2016-000060호

발간번호 NMC-2021-0025-14

MAGAZINE OO
VOL.2

나이가 들다



Aged